

중국 - 2003년 1월부터 포르말린 잔류 함유량 규제

중국 정부는 2003년 1월부터 각종 섬유제품의 포르말린 잔류 함유량을 규제한다고 한다. 포르말린(formalin)은 보통 포름알데하이드(formaldehyde)의 40% 수용액을 말하는데 섬유가공에 있어서는, 특히 합섬 제품의 방축, 방수 등 각종 수지가공이나 고착제(固着劑)로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조제(助劑)이나, 인체에 해를 끼치는 약품이므로 사용을 꺼리면서도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일본이나 우리 나라에서도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옷 등에 남아 있는 포르말린의 양을 규제하고 있다.

<표> 국가별 · 제품별 포르말린 잔류 함유량 허용 기준

구 분	유유아복	24개월 이상의 내의	피부에 접하지 않는 의류품	실내 장식품
중 국	20ppm이하	75ppm 이하	300ppm 이하	300ppm 이하
일본 · 한국	흡광도차 (A-A ₀)=0.05 이하	75ppm 이하	-	-

중국의 기준은 생후 24개월 미만의 유유아복(乳幼兒服)은 포르말린의 잔류 함유량(殘溜含有量)이 20ppm이하, 생후 24개월 이상의 내의는 75ppm 이하, 직접 피부에 접하지 않는 섬유제품 및 실내 장식품(커튼 등)은 300ppm 이하로 되어 있다.

참고로 우리 나라와 일본은 같은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, 생후 24개월 미만 유유아용 옷은 포르말린에 의한 흡광도차(吸光度差) (A-A₀)가 0.05이하이고, 생후 24개월 이상되는 사람의 내의는 중국과 같이 75ppm이하로 되어 있으며, 기타 섬유제품에 대한 규제는 없다.